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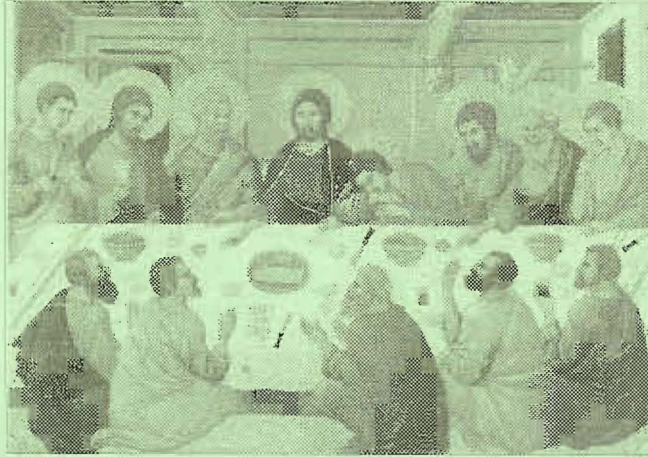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 예수 성심 성월
제33권 27호(다해) 2013·6·2

[묵상]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되새기는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님 따라 외딴 곳까지 따라온 군중,
말씀에 심취해 해 저무는지도 모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예수님,
빵도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군중의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신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라.
나는 그것을 축복하여
너희들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넘치게 하겠다.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열두 광주리
저희의 미약한 시작을
홀려넘치게 완성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저희의 내어놓을 없인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마련한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듯
저희의 봉헌을
당신의 축복으로 거룩하게 하시니
성찬례를 통하여 저희도 거룩하게 하신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아교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도 요	(연)신석균
특전미사	(생)김옥 안토니오,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김루빈, 신재현 모니카 & 신성호 요셉, 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한나 가정, 김성현 유스티노
주 일	(연)임사순 보나, 이경용 야코보, 이현호 요한, 이용식 베드로, 전시용 요한, 송기인 요셉 & 김제순 아가다, 김금침 모니카,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주윤범 아브라함, 지환덕 데레사, 김명순, 안준환 디카엘
낮 미사	(생)엄정자 분다, 미윤조 클라라, 정진권 요한, 이명자 로사, 유영균 우르바노, 이준명 마르코 & 이제이미 크리스티나, 고정민, 김영길 안드레아 & 김복희 로사리아, 차인수 안드레아, 하늘의문pr.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4,18-20

화답송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 키 체 덱 과 같 이 너는 영 원 한 사 제 로 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홀을 시온에서 뿔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네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부속가

- 성체 송가<21절부터 24절까지 짧은 양식> -
 천사의향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풀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1,23-26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루카(Luke) 9,11-17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안에 머무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성호경	106	312
봉헌	361	264	268
성체	Shout to the Lord	280	284
파견	그사랑 야훼께 감사하리라	313	31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아들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의 선포, 민족들 간의 화해와 평화

우리는, “폭력과 무기의 비극적인 소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
 간의 말이 무력해질 때에, 하느님 말씀의 예언적인 힘은 약해
 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하고 우리 자신이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되풀이하여 말한다.” 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하느님 말씀과 사랑의 실천

103).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한 투신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사랑에 근거하고 거기에서 완성되
 니다.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 동안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형제들을 향한 사심 없
 는 봉사 사이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자는, “들은 말씀을 사랑의 행위로 옮겨 놓아야 할” 필
 요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만, 사람들이 지닌 인간
 적 약함들에도, 복음의 선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좋은 일을 하시며 이 세상을 두루 다니셨
 습니다.(사도 10,38 참조).

교회 안에서 응답하는 자세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
 든 이를 향한, 특히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과 정의”가 일깨
 워집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 카리타스 -은 언
 제나 필요하며, 가장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 사랑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간도 그렇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
 바오로 사도가 쓴 사랑의 찬가를 자주 묵상하고 그것으로 감
 도되기를 권고합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
 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
 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
 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코린 13,4-8)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웃 사랑은 개인으로서나
 지역 또는 보편 교회 공동체로서나 우리에게 항구한 투신을
 요구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충만함, 그리고 성경 전체의 충만함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사랑의 빵, 생명의 양식

저는 몇년 전, 수도권의 어느 보육원에서 안식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젖먹이부터 유치원생까지 1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녀님들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옷도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병치레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원장 수녀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주 아파요. 그게 안쓰러워서 더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다고 부족한 사랑이 다 채워지겠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사랑을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주지만, 안 그러면 어렵도 없다.’는 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분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루카 23,34 참조). 또한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목자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요한 21,15-19 참조)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크신 사랑을 주시고자 빵의 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육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데, 영혼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당신 사랑을 담아 주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통해 이런 뜻을 넉넉히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먹었던 빵은 “생명을 주는 빵”(요한 6,33)

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최후 만찬 중에 성체성사를 세우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현대에는 육신의 굶주림 못지않게 영혼의 굶주림도 큰 문제입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먹고 또 먹어서 비만에 걸리는 사람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허기를 달래려고 불량식품과 같은 유사영성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루카 9,13)하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생명의 빵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큼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생명의 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과 삶을 생명의 빵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면, 누가 우리말을 믿겠습니까?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재능 없이도 가능한 하나, 사랑

누군 공부가 제일 쉬웠는지만
그건 공부 잘한 사람의 말이고,
땀가 뒹굴릴 만큼 연습했다는 발레리나도
타고난 몸매가 있어 가능한 것일터,
누구나 한가지 재능은 타고난다지만
그도 다 재능있는 사람들의 여유가 아니냐며
땀딱해 지곤 하면서 아무런 재능없이도 할 수 있는
사랑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 아녜스.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례 데레사	신증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송현식 마오로	유철희 마오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권경아 요세피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남성철 베네딕토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1반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종교교육분과장 ☎(213)505-2941
- ◆ 남가주 남성 제36차 꾸르실료(영어)
- 일시 : 6월6일(목)~9일(주일) 포모나 꾸르실료 피정센터
- 본당 수강자 : 정진웅 필립보, 박세준 요셉,
- 본당 봉사자 : 황선희 그레고리오, 고 조나탄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가사 ☎(310)749-0276

◆ 주일학교 어린이 첫영성체 예식과 축하식

- 예식이 끝날 후 강당에서 축하식이 있습니다.

- 일정 : 6월 6일(목)~9일(주일)
- 강사 : 김세을 요셉 신부
- 영적준비 : 성경읽기(루카복음, 사도행전 19,1-10, 로마서 8장, 코린트1서 11,12-14),묵주의 9일기도(5월28일~6월5일)
- 문의 : 강혜원 아녜스 성령기도회장 ☎(310)780-0369

● 본당 성령세미나 관계로 첫 목요일(6일)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되는 **점시간(목)**이 없습니다.

- **금요일(7일)** 아침미사→저녁미사(오후 7시30분)로 임시 변경

- 일시 : 6월9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 교리기간 : 6월13일~12월19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교리지도 : 오마우라 수녀)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일시 : 6월23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 교육 : 6월 6,7,8,9일(목 금 토 일) '성령안의 생활세미나'
에 의무참석해야함. 6월22일 본당신부님 교육

● 일정 : 6월8일(토) 오전 11시, 장소 : 로스 버디스 골프클럽
● 문의 : 유석영 레오 골프회장 ☎(310)997-5388

- 일시 : 6월16일(주일) 오후 3시~5시 강당
- 대상 : 성직자, 수도자, 청소년관련 사목위원, 주일학교/한국학교 교사, 자모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봉사자들
- 감사 : 서정우 프란치스코 교리교사

- 일시 : 6월16일(주일) 학생미사와 낮미사후
- 장소 : 사무실앞 회의실
- 대상 : 만 18세~44세(1969년~1995년생)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 6월2일(주일) : 소공동체(김밥, 떡 \$4)
* 주일학교(8학년 잡채밥)
- 6월9일(주일) : 토런스 서1반(짜장밥 \$3)
* 주일학교(7학년 파스타)

교무금	강태홍 김재영 서성용 윤석구 이종선 조혜정	고천용 김종문 서재원 윤화경 이효새 최길주	국세찬 김충섭 양영관 이경태 임한나 최지영	김광자 노찬술 엄세종 이귀분 장영진 한경숙	김성택 박영통 오신재 이병우 이정자	김옥보 박종열 유희연 이석진 정남형	성전헌금	강태홍 김충섭 유희연 이효새	고천용 노찬술 윤화경 임한나	국세찬 박영통 이경태 조혜정	김광자 서성용 이귀분 최길주	김옥보 양영관 이병우 최지영	김종문 엄세종 이석진 한경숙		
	합계 : \$4,085							합계 : \$2,513							
주일미사 현금: \$2,245							주보광고후원 : \$250							리사이클링 : \$108.23	

공지사항

◆ 주일학교 은총시장

- 은총시장 : 6월16일(주일) * 대상 : 유치원부터 6학년
- 상품이나 물적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교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장 ☎(213)258-8665

◆ 2013-2014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6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8일부터 등록비 인상(\$140, \$120, \$10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2013-2014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1학기 등록 받습니다.

- 6월내 4주간(2.9.16.23일) 등록시 \$160로 할인
- 8월18일 이후 등록시 \$200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 교장 ☎(310)464-7490

◆ '글로벌 시대의 한국어 교육' 세미나

- 일시 : 6월16일(주일) 오후 1시30분
- 강사 : L. A. 3가 초등학교 교장 Dr.수지 오
- 대상 : 한국학교, 주일학교 학부모님 및 교육에 관심있는 분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데미클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선착순 60명)
- 참가비 : \$50(6월2일 마감, 6월9일부터 \$70, no refund)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코디 ☎(310)709-3343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6월9일 마감)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남가주 소식

◆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 '특강'

- 일시 : 6월4일(화)~5일(목) 오후 7시30분
- 주제 : 복음화란 무엇인가?
- 강사 : 이제민 에드워드 신부(마산교구 명예성지)
- 장소 : LA 성삼 한인성당
- 문의 : ☎(323)221-8874

◆ FIAT 2013 리더십 트레이닝 피정

- 일시 : 6월20일(목)~23일(주일) 3박4일
- 장소 : 성토마스한인천주교회(애나하임)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18세이상 교회봉사자(Young Adult)
- 신청 : 6월2일(주일) 마감
- 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6/8(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6/22(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진형태 요한 424-241-5988 6/16(주일) 베이커년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김현숙 벨레렛다 526-905-4114 6/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영 클라라 895-8624 6/15(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유영균 우르파노 985-2882 6/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정훈모 바오호 377-1271 6/14(금) 오후 7시
	2	김유미 크레펜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4(금) 오후 7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377-6752 6/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성체 성사의 중요성

“성체성사는 성사 중의 성사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요?”

☞ 성경을 통해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입니다. 아홉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모든 딸아들과 만배의 죽음 앞에 파라오는 굴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 이집트를 휩쓸 때, 이스라엘 자손은 죽음을 피합니다. 죽음의 파괴자가 문설주에 발라진 짐승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거르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벗어나게 해준 결정적인 일은 이 파스카 사건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장받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작열하는 태양아래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에 울부짖습니다. 배고픔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하늘에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서 생명을 유지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약속의 땅은 지정학적인 가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천 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세상의 빵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원하시던 수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 파스카라는 때를 택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축복에 새롭고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당신의 피를 생명의 음료로 주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피는 참된 음료다.”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주는 성찬이고,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켜줍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부께 건너지신 새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파스카는 최후의 만찬에 이루어졌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찬례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생명의 빵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빵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들이 빵보다 재물을 대표하

는 돈에 더 환호하는 세상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빵 대신에 빵을 살 수 있는 돈을 나눠 주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파하고 탐욕의 질주로 인해 광주리는 텅 비었을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빚나가는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우리가 목숨을 마쳐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대의 유산입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실증이며,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서울대교구 사목국 연구실 / 가톨릭교회교리서 해설

- 산티아고 가는 길 -

☞ 까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성 야고보의 여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 끝, 지금의 스페인 끝까지 걸어갔던 야고보 사도의 여행길을 뜻합니다. 오늘날에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던 곳에 지어진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대성당까지 걷는 800km에 이르는 도보 성지 순례 코스입니다. 말이 800km이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루 27km, 하루에 70리 길을 꼬박 걸어야 한 달에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나면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뜨여지고,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정화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과 영혼의 핵심은 바로 ‘비움과 채움’이라고 합니다.

순례의 출발점에서 많은 사람은 배낭 속에 여러 가지 먹을거리, 입을 거리 등을 챙기고, 또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길을 걸으면 걸수록, 우리가 길을 걸으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큰 짐으로 다가오고,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방해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울 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생겨나고, 마음과 영혼이 새로운 힘으로 채워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비울 수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채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지팡이도, 입을 거리도 먹을거리도,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맥락 자체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걷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긴 순례를 하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긴 순례를 하는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것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은 새로운 것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길을 떠날 때는, 길을 걸을 때는 비움이 바로 채움입니다.

◆이동화 타라쿠스 신부 / 부산교구 노동사목 담당